

## 중·고등학생의 의사소통 실태 조사\*

김순자\*\* · 김명희\*\*\*

(한양대학교)

### <Abstract>

**Kim, Sun-Ja & Kim, Myung-Hee. 2004. A Survey of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Communication. *Korean Semantics, 15.***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ifferences among groups were observed in the pattern of listening and the pattern of topic introduction in friendship conversation, but no developmental change was observed. The female student group, the group of extrovert students and the group of students who replied that they had many friends used interactive communication. In addition, major factors causing problems in establishing interpersonal relations were passive communication and attitude. Second,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presentation among groups by school year but no developmental change was observed. In addition, differences were observed among groups by gender, character and communication experience. In presentation by those who replied that they feel fear when giving presentation and those who replied that they speak other than what they think, audience showed a low level of listening. Factors causing problems were interest, audience's attitude, voice, etc. Third, with regard to discussion debate, the high school student group, the male student group and the group of students who replied that they have discussion debate everyday tended to raise objections while other students were speaking and to get off the subject.

---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KRF2002-074-AM1055)에 의해 연구 되었음.”

\*\* 주저자.

\*\*\* 교신저자.

According to character, difference was observed in the pattern of raising objections but not in the degree of getting off the subject. The group of students who replied that they raise objections in their turn of speaking and the group of students who replied that they rarely get off the subject tended to experience less problems, and communication problems with friends in group activities appeared to come mostly from the disagreement of opinions.

핵심어: 의사소통 실태, 의사소통 방식, 언어 사용, 문제 발생 경험.

##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의사소통 유형별 언어 사용 실태와 의사소통 능력에 따른 문제 발생 경험 실태와 요인을 밝히는데 있다. 최근 들어,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화용적 능력이나 대인 관계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상호작용적인 사용 능력 즉, 대화 능력이나 발표나 토론 등의 문제 해결적인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sup>1)</sup> 특히 청소년 기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사소통 능력 실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sup>2)</sup>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내용 마련과 의사소통상

- 1)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 왔지만, 인간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하위 영역과 정의에 대해 지금까지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의사소통 능력은 상황이나 메시지 내용, 대상자 등 개입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오미영 2004 참조).
- 2)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은 학습자의 '창의적 국어 사용 능력(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로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어느 교육과정보다도 '의사소통 능력'에 중점을 둔 목표를 설정하고 이들 영역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어 교육 영역에서도 말하기와 듣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대부분 말하기 내용 및 체계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서재철 1990, 전은주 1999, 김혜숙 2002, 진정미 2002 등).

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의사소통 실태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이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친구 대화, 수업 시간의 발표와 모둠 활동에서의 토의·토론을 중심으로 의사소통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사적 의사소통, 집단 의사소통, 대중 의사소통의 대표적 유형이고, 학교 교육에서도 이들 유형을 중심으로 화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연구 결과의 교육적 활용을 위해서도 이러한 구분이 타당하리라 본다.<sup>3)</sup> 그리고 의사소통 유형별 언어 사용 실태와 문제 발생 경험 실태는 각 유형에서의 특징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친구 대화는 대인 관계 형성과 유지, 발표는 발표 태도와 발표 내용 전달에 대한 자기 평가, 발표에 대한 청중의 경청, 토의·토론은 대화 참여자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교환과 주제 유지 등의 측면을 다룬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각 의사소통 유형별로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변인별 언어 사용 방식을 알아본다. 언어 사용 실태는 학년, 성별, 성격 등의 기본적인 변인과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친구 수, 발표 및 모둠 활동 경험을 개별 변인으로 하여 조사·분석한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 유형별로 언어 사용 방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변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둘째, 의사소통 유형별로 언어 사용 능력과 문제 발생 경험 실태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언어적·비언어적 문제 발생 요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언어 사용 방식은 문제 발생 경험 빈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언어 사용 방식과 문제 발생 경험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여,

3) 의사소통 하위 유형은 의사소통 목적, 경로, 전달 대상, 전달 방식 등 다양한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논의에서는 의사소통 유형을 화자와 청자 관계에 따라 구분하였다. 우선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사적인가 공적인가에 따라 사적 의사소통, 공적 의사소통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화자와 청자가 일대일 관계인가 소집단인가 대중적인가에 따라 집단 의사소통, 대중 의사소통으로 하위 구분하였다(임철성 1997: p9-12 참조).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언어 사용 방식과 낮은 언어 방식의 유형과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KCS I

## 2. 연구 방법

### 2.1. 설문 항목과 내용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은 응답자의 인적 사항 2문항,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1문항, 의사소통 경험과 범위 3문항, 의사소통 방식 6문항, 의사소통 결과 평가 및 분석 6문항 등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에 대한 선택 항목은 주로 객관식으로 제시하여 응답자가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의사소통의 결과적 실태를 묻는 항목은 언어적인 요인 이외의 비언어적인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주관식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4)</sup>

영역	문항 내용		설문 번호
인적 사항	학년, 성별		1-1, 1-2
개인 특성	내성적, 외향적		1-4
환경 요인	친구수, 발표 경험, 모둠활동 경험		1-5, 1-6, 1-7
언어 사용 실태	친교 대화	듣기 방법, 화제 도입 방법	4-3, 4-4
	발표	발표 태도, 내용 전달 후 이에 대한 평가	4-7, 4-8
	토의·토론	이의 제기 방법, 주제 이탈 경험 빈도	4-11, 4-12
문제 발생 경험 실태 및 요인	친교 대화	친교 형성의 어려움을 느끼는 경험 빈도와 이유	4-1, 4-2
	발표	청중의 경청 경험 빈도와 경청하지 않는 이유	4-6, 4-7
	토의·토론	친구와 말이 통하지 않은 경험 빈도와 이유	4-9, 4-10

<표 1. 설문의 구성>

4) 설문지는 뒤에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설문의 질문과 선택 항목은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구성하였다. 첫째, 선택 항목은 응답자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질문 내용과 항목은 설문을 통한 조사가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발표나 토의·토론 등은 언어 사용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소통 결과에 대해 자기 스스로 평가를 내리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용 실태를 추론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셋째, 질문과 항목은 중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 표현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친교 대화’, ‘칭중’, ‘경청’ 등과 같은 추상적인 어휘 사용을 피하고, ‘친구와 얘기할 때’, ‘친구들’, ‘귀를 기울이다’ 등의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어휘를 사용하였다.

## 2.2.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이 연구에 사용한 설문 자료의 수집은 중학교 7개교와 고등학교 9개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고등학생들이 직접 인터넷에 접속하여 설문에 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sup>5)</sup> 조사 기간은 2004년 5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이다. 설문에 응한 학생의 변인별 분포를 보이면, 다음 표와 같다.

5) 본 논문에서는 설문 조사 내용의 신뢰성과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 항목을 3분의 2 이상 기입한 학생 4,716명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한편 설문 조사의 표본 집단의 균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대상 인원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선, 균형적 확보를 위해 특정 지역에 편중하지 않고 서울 및 경기,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 2>, <표 3>의 조사 대상자 구성 현황에서 보듯이 성별, 연령별 인원을 균등하게 수집하려고 노력하였다. 언어 사용 실태 조사에서는 표본 집단의 규모가 1,000명 이상이면 신뢰할만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본 연구에서는 4,000여 명이 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표본 집단으로서의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민현식 2002 참조).

중·고등학생의 의사소통 실태 조사

학년	성별		성격		친구수				합계
	여학생	남학생	내성적	외향적	없음	1명	2-3명	4명 이상	
중학교 1	410	389	305	494	7	10	129	653	799
중학교 2	276	565	338	503	15	17	180	629	841
중학교 3	130	530	267	393	12	10	132	506	660
고등학교 1	260	119	203	176	13	6	69	291	379
고등학교 2	377	656	502	531	25	21	197	790	1033
고등학교 3	651	353	556	448	26	15	230	733	1004
합계	2104	2612	1615	2097	98	79	937	3602	4716

<표 2. 성별, 성격, 친구 수 변인에 따른 조사 대상자 구성 현황>

학년	발표경험				모듬활동 경험				합계
	1회 (1달)	1회 (1주일)	2-3회 (1주일)	거의 매일	1회 (1달)	1회 (1주일)	2-3회 (1주일)	거의 매일	
중학교1	174	207	240	178	261	267	216	55	799
중학교2	293	217	185	146	315	292	200	34	841
중학교3	284	153	114	109	374	162	91	33	660
고등학교1	163	117	60	39	146	117	99	17	379
고등학교2	696	182	92	63	615	238	130	50	1033
고등학교3	684	164	95	61	757	143	60	44	1004
합계	2294	1040	786	596	2468	1219	796	233	4716

<표 3. 발표 경험, 모듬활동 경험 변인에 따른 조사 대상자 구성 현황>

본 논문에서는 설문조사 분석을 위해 Microsoft Excel과 SPSS 1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우선 응답 내용은 내용 정리와 빈도 추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Microsoft Excel로 저장하였고, 다음으로 변인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백분율을 구하였다. 변인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피어슨(Pearson)의 카이제곱 통계량( $\chi^2$ )을 이용하였다. 또한 의사소통 유형별 문제 발생 실태는 경험 빈도를 4점 척도로 계산하여 이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제시하고 분산 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의사소통 유형별 문제 발생 경험 빈도간의 상관 관계는 스피어맨(spearman)의 상관 계수(r)로 검증하였다.

### 3. 친교 대화 실태 조사

#### 3.1. 친교 대화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친교 대화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는 친구와의 대화에서 듣는 방법과 화제 도입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듣는 방법의 사용 실태는 친구가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를 묻고, '아무 말 없이 듣는다', '맞장구를 치며 듣는다', '친구 얘기와는 상관없이 내 얘기를 한다'는 응답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여 조사하였다. 그 다음으로 화제 도입 방법의 사용 실태는 친구와 대화시 화제가 중단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묻고 이에 대해 '가만히 있다', '무슨 얘기든 시작한다', '친구에게 말 좀 하라고 한다'는 항목을 제시하여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조사하였다.

듣기 방법과 화제 도입 방법의 각 하위 유형은 각각 소극적 의사소통 방식, 타인 배려적 의사소통 방식, 자기 중심적 의사소통 방식에 속하는 언어 사용 방법이다. 아무 말 없이 듣는 방법과 화제를 도입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방법은 소극적 의사소통 방식에 속하며,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며 듣는 방법과 자발적으로 화제를 도입하는 방법은 타인 배려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속한다. 한편 상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방법과 상대방에게 화제를 도입할 것을 강요하는 방법은 자기 중심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다.<sup>6)</sup>



3.1.1.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언어 사용 실태

듣는 방법에 대한 응답을 조사한 결과, 학년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는 카이제곱 값( $\chi^2$ )이 27.3( $p < .01$ ), 성별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는 카이 제곱값( $\chi^2$ )이 165.0( $p < .0001$ )으로 나타나 유의 수준 5%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학년 변인에 따른 결과부터 살펴보면, 학년 집단간의 차이는 나타나지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특정 응답 비율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구분	아무 말 없이 듣는다		맞장구를 치며 듣는다		친구 얘기와는 상관없이 내 얘기를 한다		합계
	N(%)	기대 도수	N(%)	기대 도수	N(%)	기 대 도 수	
중1	91(11.4)	80	686(85.9)	703	22(2.8)	17	799(100)
중2	71(8.4)	84	760(90.4)	740	10(1.2)	17	841(100)
중3	57(8.6)	66	592(89.7)	581	11(1.7)	14	660(100)
고1	50(13.2)	38	316(83.4)	333	13(3.4)	8	379(100)
고2	92(8.9)	103	927(89.7)	909	14(1.4)	21	1033(100)
고3	109(10.9)	100	867(86.4)	883	28(2.8)	21	1004(100)

$\chi^2=27.3$  df=10  $p < .01$

<표 4. 듣기 방법과 학년별 분할표>

6) 본 연구에서 구분하고 있는 의사소통 방식은 McKay et al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McKay et al은 의사소통 유형을 소극적 유형, 공격적 유형, 적극적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소극적 유형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억누르는 경향을 보이며, 공격적 유형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만, 때때로 타인의 권리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이에 반해 적극적 유형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표현하며, 타인의 권리나 감정을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임철성 외 역 1999:204-207 참조).

모든 학년에서 듣는 방법에 대한 응답은 ‘맞장구를 치며 듣는다’, ‘아무 말 없이 듣는다’, ‘친구 얘기와는 상관없이 듣는다’는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 변인에 따라서는 맞장구를 치며 듣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93.4%)이 남학생(81.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아무 말 없이 듣는다’와 ‘친구 얘기와는 상관없이 얘기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이 15.9%, 2.9%로, 여학생 5.2%, 1.4%보다 높았다. 그 결과를 보이면 <표 5>와 같다.

구분	아무 말 없이 듣는다		맞장구를 치며 듣는다		친구 얘기와는 상관없이 내 얘기를 한다		기 대 도 수	합계
	N(%)	기대 도수	N(%)	기대 도수	N(%)	기대 도수		
남학생	334(15.9)	210	1709(81.2)	185	61(2.9)	44	2104(100)	
여학생	136(5.2)	260	2439(93.4)	229	37(1.4)	54	2612(100)	
$\chi^2=165.0$ df=2 p<.0001								

<표 5. 듣기 방법과 성별 분할표>

화제 도입 방법에 대한 응답 결과 역시 학년( $\chi^2=19.2$  p<.05)과 성별( $\chi^2=53.6$  p<.0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앞서와 마찬가지로 학년에 따른 발달적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구분	가만히 있다		할 얘기를 생각해 내서 무슨 얘기를 시작한다		친구에게 말 좀 하라고 한다		합계
	N(%)	기대 도수	N(%)	기대 도수	N(%)	기대 도수	
중1	189(23.7)	190	530(66.3)	531	80(10.0)	79	799(100)
중2	179(21.3)	200	575(68.4)	559	87(10.3)	83	841(100)
중3	147(22.3)	157	443(67.1)	438	70(10.6)	65	660(100)
고1	99(26.1)	90	236(62.3)	252	44(11.6)	37	379(100)
고2	227(22.0)	245	707(68.4)	686	99(9.6)	102	1033(100)
고3	279(27.8)	238	641(63.8)	667	84(8.4)	99	1004(100)

$\chi^2=19.2$  df=10 p<.05

<표 6. 화제 도입 방법과 학년별 분할표>

모든 학년에서 응답의 순위가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발적인 화제 도입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그 다음 ‘가만히 있다’, ‘친구에게 말 좀 하라고 한다’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분	가만히 있는다		할 얘기를 생각해 내서 무슨 얘기든 시작한다		친구에게 말 좀 하라고 한다		합계
	N(%)	기대 도수	N(%)	기대 도수	N(%)	기대 도수	
남학생	606(28.8)	500	1307(62.1)	1397	191(9.1)	207	2104(100)
여학생	514(19.7)	620	1825(69.9)	1735	273(10.5)	257	2612(100)
$\chi^2=53.6$ df=2 p<.0001							

<표 7. 화제 도입 방법과 성별 분할표>

위 표에서 보듯이 자발적으로 화제를 도입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69.9%)이 남학생(62.1%)보다 높으며, ‘가만히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28.8%)이 여학생(19.7%)보다 높다. ‘친구에게 말 좀 하라고 한다’는 응답은 거의 차이가 없으나, 여학생(10.5%)이 남학생(9.1%)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친교 대화에서 듣는 방법과 화제 도입 방법에서 학년에 따른 발달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중학교 이전 단계에서 이미 기본적인 친교 대화 능력을 습득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sup>7)</sup>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타인 배려적인 의사소통 방식 즉 공감적 듣기 방법과 자발적인 화제 도입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 3.1.2. 개인 특성 및 친교 범위에 따른 언어 사용 실태

성격과 친구수 변인에 따른 듣기 방법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성격( $\chi^2=74.07$ , p<.0001)과 친구수( $\chi^2=91.9$ ) 변인 모두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격 변인에 따른 조사 결과를 보

7)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설문 문항을 조사한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김정선(2004; 발표예정)에 따르면 고학년일수록 공감적 듣기 표시와 자발적인 화제 도입을 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발달적 변화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면 다음 <표 8>과 같다.

구분	아무 말 없이 듣는다		맞장구를 치며 듣는다		친구 얘기와는 상관없이 내 얘기를 한다		합계
	N(%)	기 대 도 수	N(%)	기 대 도 수	N(%)	기 대 도 수	
내성적	304(14.0)	216	1819(83.8)	1910	48(2.2)	45	2171(100)
외향적	166(6.5)	254	2329(91.5)	2238	50(2.0)	53	2545(100)

$\chi^2=74.07$  df=2 p<.0001

<표 8. 듣기 방법과 성격별 분할표>

‘맞장구를 치며 듣는다’는 응답은 외향적인 성격의 집단(91.5%)이 내성적 집단(83.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내성적 집단은 ‘아무 말 없이 듣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14%로 외향적 집단 6.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친구 얘기와는 상관없이 내 얘기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집단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



구분	아무 말 없이 듣는다		맞장구를 치며 듣는다		친구 얘기와는 상관없이 내 얘기를 한다		합계
	N(%)	기 대 도 수	N(%)	기대 도수	N(%)	기 대 도 수	
없다	33 (33.7 )	10	60 (61.2 )	86	5 (5.1)	2	98 (100)
1명	14 (17.7 )	8	762 (78.5 )	69	3 (3.8)	2	79 (100)
2-3명	118 (12.6 )	93	797 (85.1 )	824	22 (2.3)	19	937 (100)
4명 이상	305 (8.5)	359	3229 (89.6 )	316 8	68 (1.9)	75	3602 (100)

$\chi^2=91.9$   $df=6$   $p<.0001$

<표 9. 듣기 방법과 친교 범위별 분할표>

친구수가 많다고 응답한 집단일수록 맞장구를 치며 듣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지며, 이와 반대로 ‘아무 말 없이 듣는다’와 ‘친구 얘기와는 상관없이 내 얘기를 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화제 도입 방법에서도 성격별과 친구 수에 따라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구분	가만히 있다		할 얘기를 생각해 내서 무슨 얘기도 시작한다		친구에게 말 좀 하라고 한다		합계
	N (%)	기대도수	N (%)	기대도수	N (%)	기대도수	
내성적	646 (29.8)	516	1318 (60.7)	144 2	207 (9.5)	214	2171 (100)
외향적	474 (18.6)	604	1814 (71.3)	169 0	257 (10.1)	250	2545 (100)

$\chi^2=81.2$  df=2 p<.0001

<표 10. 화제 도입 방법과 성격별 분할표>

자발적으로 화제를 도입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외향적 성격 집단(71.3%)이 내성적 성격 집단(60.7%)보다 높으며, 화제를 도입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내성적 성격 집단(29.8%)이 외향적 성격 집단(18.6%)보다 높다. ‘친구에게 말 좀 하라고 한다’는 응답은 집단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분	가만히 있다		할 얘기를 생각해 내서 무슨 얘기를 시작한다		친구에게 말 좀 하라고 한다		합계
	N(%)	기 대 도 수	N(%)	기 대 도 수	N(%)	기 대 도 수	
없다	48 (49.0 )	23	38 (38.8)	65	12 (12.2)	10	98 (100)
1명	26 (32.9 )	19	43 (54.4)	52	10 (12.7)	8	79 (100)
2-3명	260 (27.7 )	223	605 (64.6)	622	72 (7.7)	92	937 (100)
4명 이상	786 (21.8 )	855	2446 (67.9)	239 2	370 (10.3)	354	3602 (100)

$\chi^2=62.0$  df=6 p<.0001

<표 11. 화제 도입 방법과 친구 범위별 분할표>

친구수가 많다고 응답한 집단일수록 자발적인 화제 도입의 상대 빈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가만히 있다'는 응답의 빈도는 낮아지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응답의 순위가 학년, 성별, 성격 변인에 따른 결과에서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반해, 친구수 변인에서는 순위 변동을 보인다는 점이다. 친구수가 없다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 '가만히 있다'를 선택한 비율이 49%로 나타나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정리하면, 외향적 집단과 친구수가 많다고 응답한 집단일수록 타인 배려적인 의사소통 방식 즉 공감적인 듣기 방법과 자발적인 화제 도입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해 친교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성격, 친구 범위와 친교



능력의 관련성을 밀접한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sup>8)</sup>

### 3.2. 친교 대화에서의 문제 발생 경험 빈도 및 요인

친교 대화에서의 문제 발생 경험 빈도는 ‘새 학년이 되었을 때 말을 못해서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울 때가 있나요?’라는 질문을 주고, 어려움의 경험 빈도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분하여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이를 점수로 계산하여 어려움의 정도를 계산하였다.<sup>9)</sup> 다음으로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하여, 이를 답변을 보다 상위의 항목으로 묶어 그 결과를 조사하였다.

---

8)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외향적 성향의 사람이 내성적 성향의 사람들보다 대인 관계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며, 대인 관계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고 친교 범위 역시 넓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오미영 2004, 허경호 2003, 심혜숙·이상순 1998 참조),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역시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 경험 빈도는 점수로 환산하여 이에 대한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환산하였다.

### 3.2.1. 언어 사용 방식에 따른 문제 발생 경험 빈도

친교 대화에서 언어 사용 방식과 문제 발생 경험 빈도의 관련을 알아보기 위해, 듣기와 화제 도입 방법에 따른 문제 발생 경험 빈도 간의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간의 평균값의 차이를 보여주는 F값이 듣는 방법은 60.2( $p < .0001$ ), 화제 도입 방법은 53.4( $p < .0001$ )로 나타나, 두 변인 모두 유의 수준 5%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형	방식	평균(M)	표준 편차(SD)
듣는 방법	잠자코 듣는다	2.49	1.06
	맞장구를 치며 듣는다	2.00	0.89
	친구 말과는 상관없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	2.11	1.01
F=60.2 p<.0001			
화제 도입 방법	가만히 있다	2.30	1.01
	할 얘기를 생각해 내서 무슨 얘기든 시작한다	1.97	0.89
	친구에게 말 좀 하라고 한다	1.97	0.86
F=53.4 p<.0001			

<표 12. 언어 사용 방식에 따른 문제 발생 경험 빈도>

위 표를 보면, 듣는 방법에서 ‘잠자코 듣는다’고 응답한 집단(2.49)이 비교 집단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맞장구를 치며 듣는다’고 응답한 집단(2.0)과 ‘친구 말과는 상관없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고 응답한 집단(2.11)은 집단적 차이가 거의 없다. 화제 도입 방법에서는 ‘가만히 있다’고 응답한 집단(2.30)이 ‘할 얘기를 생각해 내서 무슨 얘기든 시작한다’고 응답한 집단(1.97)과 ‘친구에게 말 좀 하라고 한다’고 응답한 집단(1.97)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기 중심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는 집단이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고, 타인 배려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가장 덜 겪을 것으로 예

상했는데,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이 두 집단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고, 소극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는 집단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왔다.

### 3.2.2. 대인 관계 형성에서의 문제 발생 요인

대인 관계 형성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한 결과를 언어 수행면, 인간 관계면, 개인적 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역	내용	빈도(%)	
언어 수행면	먼저 말을 걸기 어려움	681(23.4)	1206(41.4)
	대화 주제 결여	447(15.4)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함	51(1.8)	
	상대방의 부정적인 응대	27(0.9)	
인간 관계면	서먹한 관계	469(16.1)	747(25.7)
	상대방과 성격·가치관 등의 차이	123(4.2)	
	다른 친구와의 관계	70(2.4)	
	새로운 친구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 부족	39(1.3)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지 못함	46(1.6)	
개인적 특성	낮을 가리거나 내성적인 성격	500(17.2)	
	기타	459(15.8)	
	합계	2912(100)	

<표 13. 대인 관계 형성의 문제 발생 원인과 빈도>

언어 수행의 문제에서는 ‘먼저 말을 걸기가 어려워’ 문제가 발생한다는 응답이 23.4%로 나타나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원활한 대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언어 수행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상대방의 기호나 가치관, 생각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생기는 대화 주제의 결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응답은 15.4%로 나타나고 있으

며, 말이 유창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는 응답은 1.8%로 비교적 낮은 빈도를 보였다. 그 외에 상대방의 부정적인 응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응답은 0.9%로 나타났다. 인간관계에서는 16.1%가 '서먹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상대방과 성격이나 생각이 달라서'라고 응답한 경우는 4.2%이다. 질문 내용과는 동떨어진 답변이기는 하지만 '다른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새로운 친구 관계를 맺기 힘들어서'나 '친구들이 따돌려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응답도 2.4%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적 특성에서는 주로 '낮을 가리거나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응답이 주로 나왔다.

문제 발생 원인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많은 경우 내성적 성격이거나 서먹한 관계일 경우에는 먼저 말을 걸기가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대인 관계 형성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대부분은 소극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 4. 발표 활동 실태 조사

### 4.1. 발표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

발표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는 발표 태도와 발표에 대한 자기 평가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발표 태도는 피드백을 고려한 말하기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발표 태도 실태 조사는 발표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내가 할 말만 한다', '내 말을 잘 듣는지 보면서 말한다', '떨려서 아무 생각이 안 난다'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조사하였다.<sup>10)</sup> 다음으로 발표 평가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발표를 한 후에 어떤 기분이 드는가를 묻고 '생각대로 발표해서 만족스럽다', '생각을 다 말하지 못한 것 같다', '생각과는

10) '내 할 말만 한다'와 '떨려서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둘 다 피드백을 고려하지 않는 말하기 방법이지만, 전자는 의식적으로 청중을 고려하지 않는 말하기를 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다른 말을 했다'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조사하였다. 발표의 목적은 효과적인 내용 전달에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중과의 상호작용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드백을 고려하는 말하기를 한다와 생각한 대로 발표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효과적인 언어 수행 방식을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4.1.1.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언어 사용 실태

발표 태도를 조사한 결과, 학년( $\chi^2=10.9$   $p<0.5$ )과 성별( $\chi^2=55.3$   $p<.0001$ ) 변인 모두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먼저, 학년별 응답 내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이면 다음 <표 14>와 같다.

학년	떨려서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청중이 내 말을 듣는지 보지 않고 말한다		청중이 내 말을 듣는지 보면서 발표하는 편이다		합계
	N(%)	기대 도수	N(%)	기대 도수	N(%)	기대 도수	
중1	209(26.2)	216	204(25.5)	183	386(48.3)	400	799(100)
중2	224(26.6)	227	168(20.0)	193	449(53.4)	421	841(100)
중3	176(26.7)	178	151(22.9)	151	333(50.5)	330	660(100)
고1	105(27.7)	102	86(22.7)	87	188(49.6)	190	379(100)
고2	289(28.0)	279	226(21.9)	237	518(50.1)	517	1033(100)
고3	270(26.9)	271	247(24.6)	230	487(48.5)	503	1004(100)
$\chi^2=10.9$ $df=10$ $p<0.5$							

<표 14. 발표 태도와 학년별 분할표>

위 표를 보면, 친교 대화에서와 마찬가지로 학년 집단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일정한 발달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청중을 고려하면서 말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다.11)

11) 초등학교 단계에서도 발표 태도는 학년에 따라 일정한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전 학년에 걸쳐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듣는지 보면서 발표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내

학년	떨러서 아무 생각이 안 난다 N(%)	기 대 도 수	청중이 내 말을 듣는지 보지 않고 말한다		청중이 내 말을 듣는지 보면서 발표하는 편이다		합계
			N(%)	기대 도수	N(%)	기대 도수	
남학생	566(26.9)	568	584(27.8)	483	954(45.3)	1053	2104(100)
여학생	707(27.1)	705	498(19.1)	599	1407(53.9)	1308	2612(100)
$\chi^2=55.3$ df=2 p<.0001							

<표 15. 발표 태도와 성별 분할표>

발표 태도에 대해서 여학생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53.9%가 청중을 고려하면서 발표한다고 응답하여, 남학생의 응답 비율 43.3%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청중을 고려하지 않고 말한다는 응답은 남학생이 27.8%로 나타나, 여학생의 응답 비율 19.1%보다 높다. 발표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여학생 집단(27.1%)이 남학생 집단(26.9%)보다 약간 높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발표 내용 전달 후 이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변인 집단별로 응답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학년( $\chi^2=142.3$  p<.0001)과 성별( $\chi^2=34.3$  p<.0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할 말만 한다'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김정선 2004:발표예정).

구분	생각한 것과는 다른 말을 한 것 같다		내 생각을 다 말하지 못한 것 같다		생각한 대로 발표한 것 같다.		합계
	N(%)	기대 도수	N(%)	기대 도수	N(%)	기 대 도 수	
중1	129(16.1)	135	352(44.1)	454	318(39.8)	210	799(100)
중2	144(17.1)	142	464(55.2)	478	233(27.7)	221	841(100)
중3	100(15.2)	112	365(55.3)	375	195(29.5)	174	660(100)
고1	66(17.4)	64	215(56.7)	215	98(25.9)	100	379(100)
고2	166(16.1)	175	641(62.1)	587	226(21.9)	272	1033(100)
고3	192(19.1)	170	642(63.9)	570	170(16.9)	264	1004(100)

$\chi^2=142.3$  df=10 p<.0001

<표 16. 발표 내용 전달에 대한 평가와 학년별 분할표>

위 표를 보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생각한 대로 발표했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내 생각을 다 말하지 못한 것 같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생각대로 발표했다는 응답이 증가하리라고 예상했는데,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sup>12)</sup> 이 항목이 발표에 대한 자기 평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결과는 발표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 기준이 학년과 비례하여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라 풀이된다.<sup>13)</sup>

12) 초등학교 단계에서도 중·고등학교 단계와 마찬가지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생각한 대로 발표해서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감소하고, ‘다 말하지 못한 것 같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한다(김정선 2004; 발표예정).

13) 임철성(2003)에 따르면 학생들은 발표 자체를 꺼리며 이러한 경향은 학령이 높아질수록 심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그는 학생이 발표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교사와 다른

구분	생각한 것과는 다른 말을 한 것 같다		내 생각을 다 말하지 못한 것 같다		생각한 대로 발표한 것 같다.		합계
	N(%)	기대도수	N(%)	기대도수	N(%)	기대도수	
남학생	426(20.2)	356	1118(53.1)	1195	560(26.6)	553	2104(100)
여학생	371(14.2)	441	1561(59.8)	1484	680(26.0)	687	2612(100)
$\chi^2=34.3$ df=2 p<.0001							

<표 17. 발표 내용 전달에 대한 평가와 성별 분할표>

‘생각과 다른 말을 했다’는 응답은 남학생(20.2%)이 여학생(14.2%)보다 높고, ‘내 생각을 다 말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남학생(53.1%)이 여학생 집단(59.8%)보다 낮다. 이 역시 발표 능력의 차이보다는 평가 기준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생각한 대로 발표했다’는 응답은 그 빈도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

#### 4.1.2. 개인 특성 및 발표 경험에 따른 언어 사용 실태

개인 특성과 발표 경험 변인에 따라 발표 태도와 발표에 대한 평가가 차이를 보이는 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격( $\chi^2=327.7$  p<.0001)과 발표 경험 빈도( $\chi^2= 307.7$  p<0.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4)</sup>

학습자로부터 받게 되는 발표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들고 있다.

14) 본 연구에는 발표 경험이나 모둠 활동 경험 등의 변인은 학년에 따른 누적 경험 빈도를 정확히 조사하기 어려워 현 학년에서의 경험 빈도만을 변인으로 삼았다.



	떨려서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청중이 내 말을 듣는지 보지 않고 말한다		청중이 내 말을 듣는지 보면서 발표하는 편이다		합계
	N(%)	기대 도수	N(%)	기대 도수	N(%)	기대 도수	
내성적	821(37.8)	586	552(25.4)	498	798(36.8)	1087	2171(100)
외향적	452(17.8)	687	530(20.8)	584	1563(61.4)	1274	2545(100)

$\chi^2=327.7$  df=2 p<.0001

<표. 18 발표 태도와 성격별 분할표>

외향적 성격 집단에서는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며 발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에 내성적 성격 집단에서는 발표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청중이 내 말을 듣는지 보지 않고 말한다’는 응답은 내성적 성격 집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



	떨려서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청중이 내 말을 듣는지 보지 않고 말한다		청중이 내 말을 듣는지 보면서 발표하는 편이다		합계
	N(%)	기대 도수	N(%)	기대 도수	N(%)	기 대 도 수	
한 달에 1번	815 (35.5)	619	575 (25.1)	526	904 (39.4)	114 8	2294 (100)
1주일에 1번	270 (26.0)	281	241 (23.2)	239	529 (50.9)	521	1040 (100)
1주일에 2-3번	129 (16.4)	212	151 (19.2)	180	506 (64.4)	394	786 (100)
거의 매일	59 (9.9)	161	115 (19.3)	137	422 (70.8)	298	596 (100)

$\chi^2=307.7$  df=3 p<.001

<표 19. 발표 태도와 발표 경험 빈도별 분할표>

위 표에 보면, 발표 경험이 많을수록 발표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감소하고, 청중의 반응을 보면 말한다는 응답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중의 반응을 보지 않고 말한다는 응답 비율 역시 매일한다는 집단이 1주일에 2~3번 한다는 집단보다 0.1%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발표 내용 전달에 대한 평가에서도 성격( $\chi^2=210.5$  p<.0001)과 발표 경험( $\chi^2=175.3$  p<.001)에 따라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구분	생각한 것과는 다른 말을 한 것 같다		내 생각을 다 말하지 못한 것 같다		생각한 대로 발표한 것 같다.		합계
	N(%)	기대 도수	N(%)	기대 도수	N(%)	기대 도수	
내성적	487 (22.4)	367	1312 (60.4)	1233	372 (17.1)	571	2171 (100)
외향적	310 (12.2)	430	1367 (53.7)	1446	868 (34.1)	669	2545 (100)

$\chi^2=210.5$  df=2 p<.0001

<표 20. 발표 전달과 성격별 분할표>

위 표를 보면, ‘생각대로 발표했다’는 응답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향적 집단의 응답 비율(34.1%)이 내성적 집단의 응답 비율(17.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생각과는 다른 말을 했다’와 ‘생각을 다 말하지 못한 것 같다’는 항목은 내성적 집단의 응답 비율이 각각 22.4%, 60.4%로 나타나고 있어, 외향적 집단 응답 비율 12.2%, 53.7%보다 높다.



구분	생각한 것과는 다른 말을 한 것 같다		내 생각을 다 말하지 못한 것 같다		생각한 대로 발표한 것 같다.		합계
	N(%)	기대 도수	N(%)	기대 도수	N(%)	기대 도수	
한 달에 1번	477 (20.8)	388	1423 (62.0)	1303	394 (17.2)	603	2294 (100)
1주일에 1번	175 (16.8)	176	597 (57.4)	591	268 (25.8)	273	1040 (100)
1주일에 2-3번	96 (12.2)	133	409 (52.0)	447	281 (35.8)	207	786 (100)
거의 매일	49 (8.2)	101	250 (41.9)	339	297 (49.8)	157	596 (100)

$\chi^2=175.3$   $df=3$   $p<0.001$

<표 21. 발표 내용 전달에 대한 평가와 발표 경험의 분할표>

발표 경험의 빈도가 높을수록 ‘생각과는 다른 말을 했다’와 ‘생각을 다 말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줄어들며, ‘생각대로 발표했다’는 응답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4.2. 발표에서의 문제 발생 경험 빈도와 요인

발표에서의 문제 발생 경험 빈도는 ‘내가 발표를 하면 친구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편인가?’는 질문을 주고, 이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경험 빈도를 선택하도록 하여 조사하였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경험 빈도는 점수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sup>15)</sup> 문제 발생 요인은 친구들이 응답자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여 그 결과를 조사하였다.

15) 이 항목에서는 청중의 경청 경험 빈도를 물었기 때문에 문제 발생 경험 빈도가 적을수록 점수가 높다.

4.2.1. 언어 사용 방식에 따른 문제 발생 경험 빈도

발표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에 따라 문제 발생 경험 빈도의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문제 발생 경험 빈도는 발표 태도(F=140.6, p<.0001)와 발표에 대한 평가(F=69.7, p<.0001)에 따라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M)	표준편차(SD)
발표 태도	발표의 두려움을 느낀다	2.77	0.62
	청중의 반응을 보지 않고 발표한다	2.80	0.61
	청중의 반응을 보면서 말한다	3.06	0.50
		F=140.6	p<.0001
발표 내용 전달에 대한 평가	생각한 것과 다른 말을 한 것 같다	2.79	0.69
	내 생각을 말하지 못한 것 같다	2.89	0.53
	생각대로 발표했다	3.08	0.58
		F=69.7	p<.0001

<표 22. 발표에서의 언어 사용 양상과 청중의 경청 경험 빈도>

위 표를 보면, 발표 태도에서 발표의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집단은 청중의 경청 경험 빈도가 평균 2.77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집단에서 문제 발생 경험 빈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말한다고 응답한 집단은 청중의 경청 경험 빈도가 평균 3.06으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 발생을 경험하는 빈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왔다. 집단간 차이를 비교해 보면, 발표의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집단과 청중의 반응을 보지 않고 발표한다고 응답한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결과를 보였다(t=-1.29 p>.05). 발표의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집단과 청중의 반응을 보면서 말한다고 응답한 집단은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t=-12.9, p<.0001), 청중의 반응을 보지 않고 발표한다는 집단과 청중의 반응을 보면서 말한다고 응답한 집단 역시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5.2

p<.0001). 이를 통해 보면, 문제 발생 경험 빈도는 피드백을 고려하여 발표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발표 평가에서는 ‘생각한 것과는 다른 말을 했다’고 응답한 집단이 ‘내 생각을 말하지 못한 것 같다’고 응답한 집단보다는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나며(t=-4.5 p<.0001), ‘내 생각을 말하지 못한 것 같다’고 응답한 집단이 ‘생각대로 발표했다’고 응답한 집단보다는 어려움을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9.8 p<.0001).

#### 4.2.2. 발표에서의 문제 발생 요인

발표에서 청중이 경청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 <표 23>과 같다.

영역	내용	N(%)	
내용면	재미가 없어서	531(24.2)	820(37.4)
	아는 내용이라서	174(7.9)	
	논리 부족	115(5.2)	
태도면	친구들의 주의 부족(다른 일을 하거나 떠듦)	433(19.8)	676(30.9)
	발표 태도가 좋지 않아서(자신감 결여, 장난스런 태도)	134(6.1)	
	청중이 발표자를 싫어하고 무시해서	109(5.0)	
표현면	목소리가 작아서	335(15.3)	566(25.8)
	말이 유창하지 않아서	222(10.1%)	
	말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려서	9(0.4)	
기타		129(5.9)	
합계		2191(100)	

<표 23. 발표 시 청중이 집중하지 않은 이유와 빈도>

응답자들은 청중이 경청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발표 내용의 문제를 들고 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24.2%의 학생이 ‘발표 내용이 재미가 없어서’라고 답하였으며, 7.9%가 ‘아는 내용이라서’라고 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발표 태도의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친구들이 발표 자체를 듣지 않아서’(19.8%), ‘친구들이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에’(5.0%) 순이다. 표현에서의 문제는 ‘목소리가 작아서’(15.3%),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해서’(10.1%), 그 외 ‘말의 속도 문제’(0.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발표에 대한 교육이 주로 내용의 논리성과 표현의 정확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응답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체 응답 가운데 논리성 부족은 5.2%에 불과했으며, 응답자들은 논리성 부족보다는 재미없는 내용이 더 큰 장애 요인이라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생이 발표 내용의 논리 구성을 잘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용의 재미를 더 중요한 수행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이와 더불어 중·고등학생은 표현에서도 발음의 정확성보다는 목소리의 크기를 더 중요하게 보았다. 한편, 많은 응답자들이 발표에서의 장애 요인으로 청중의 태도 문제를 들고 있는데, 이는 발표에 대한 듣기 태도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5. 토의·토론 실태조사

### 5.1. 토의·토론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

토의·토론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는 이의 제기를 하는 방법과 주제 이탈의 경험 빈도 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묻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도중에 말한다’, ‘다른 사람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말한다’는 항

목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조사하였다. 주제 이탈의 경험 빈도 조사는 논의되고 있는 주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모둠 활동을 할 때 나는 단 얘기를 자주 하나요?’라고 묻고, 이에 대해 이탈하는 경험 빈도를 선택하도록 한 후에 그 결과를 조사하였다.

KCS I



5.1.1.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언어 사용 실태

토의·토론 상황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학년,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두 변인 모두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변인에 따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는 응답 비율은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한다’,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다’, ‘친구가 말하는 도중에 말한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3학년에서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도중에 말한다’는 응답이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분	속으로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도중에 말한다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난 후에 말한다		합계
	N(%)	기대 도수	N(%)	기대 도수	N(%)	기대 도수	
중1	190(23.8)	92	137(17.1)	264	472(59.1)	472	799(100)
중2	203(24.1)	99	128(15.2)	285	510(60.6)	510	841(100)
중3	182(27.6)	72	107(16.2)	207	371(56.2)	371	660(100)
고1	94(24.8)	39	84(22.2)	112	201(53.0)	201	379(100)
고2	277(26.8)	104	220(21.3)	300	536(51.9)	536	1033(100)
고3	217(21.6)	106	241(24.0)	305	546(54.4)	546	1004(100)

$\chi^2=44.56$   $df=10$   $p<.0001$

<표 24. 이의 제기 방법과 학년별 분할표>

위 표를 보면, 학년의 증가에 따라 일정한 발달적 양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두 항목에서 고등학생 집단과 중학생 집단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도중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등학생 집단이 중학생 집단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말이 끝난 후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생 집단이 고등학생 집단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학년별로 일정한 경향성을 찾아보기 힘들

다.16)

구분	속으로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도중에 말한다		다른 사람 끝난 후에 말한다		합계
	N(%)	기대 도수	N(%)	기대 도수	N(%)	기대 도수	
남학생	535(25.4)	519	463(22.0)	409	1106(52.6)	1176	2104(100)
여학생	628(24.0)	644	454(17.4)	508	1530(58.6)	1460	2612(100)
$\chi^2=21.25$ df=2 p<.0001							

<표 25. 이의 제기 방법과 성별 분할표>

성별로는 남학생이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다’, ‘친구가 말하는 중에 말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 집단에 비해 높으며, 여학생은 말차례를 지키며 이의 제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토의·토론에서 주제 이탈의 경험 빈도를 조사하기 위해 응답자가 선택한 항목을 집수로 환산하여 집단별로 각각 분석 분석과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학년 변인(F=19.2, p<.0001), 성별 변인(t=7.5, p<.0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16) 초등학교 단계에서도 중·고등학교 단계와 마찬가지로 학년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에서 일정한 변화 양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5학년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한다’,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다’, ‘친구가 말하는 도중에 말한다’는 응답 순으로 나타난다고 한다(김정선 2004: 발표예정).

중·고등학생의 의사소통 실태 조사

구분		평균(m)	표준편차(SD)
학년	중1	1.91	0.68
	중2	1.95	0.64
	중3	2.02	0.71
	고1	2.10	0.72
	고2	2.16	0.70
	고3	2.15	0.71
			F=19.2 p<.0001
성별	남학생	2.14	0.75
	여학생	1.99	0.65
			t=7.5 p<.0001

<표 26. 주제 이탈 경험 빈도와 학년·성별 분할표>

K C I

학년별 변인에 따른 차이를 보면, 중학생 집단보다는 고등학생 집단이 주제를 이탈하는 경험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 집단은 평균 이상으로 주제 이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는 주제를 이탈하는 경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5.1.2. 개인 특성 및 토의·토론 경험에 따른 언어 사용 실태

개인 성격과 토의·토론 경험 변인에 따른 이의 제기 방법의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격( $\chi^2=156.6$ ,  $p<.0001$ ), 토의·토론 경험 빈도( $\chi^2=41.9$ ,  $p<.0001$ )에서 모두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분	속으로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도중에 말한다		다른 사람 끝난 후에 말한다		합계
	N(%)	기대 도수	N(%)	기대 도수	N(%)	기대 도수	
내성적	718(33.1)	535	399(18.4)	422	1054(48.5)	1213	2171(100)
외향적	445(17.5)	628	518(20.4)	495	1582(62.2)	1423	2545(100)
$\chi^2=156.61$ $df=2$ $p<.0001$							

<표 27. 이의 제기 방법과 성격별 분할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내성적 성격의 집단(33.1%)이 외향적 성격의 집단(17.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도중에 말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외향적 성격의 집단이 내성적 성격의 집단보다 높으며, 특히 다른 사람이 말이 끝난 후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외향적 성격 집단이 62.2%, 내성적 성격 집단이 48.5%로 나타나고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구분	속으로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도중에 말한다		다른 사람 끝난 후에 말한다		합계
	N(%)	기대도수	N(%)	기대도수	N(%)	기대도수	
1달에 1번	685 (27.8)	609	472 (19.1)	480	1311 (53.1)	137 9	2468 (100)
1주일에 1번	282 (23.1)	301	236 (19.4)	237	701 (57.5)	681	1219 (100)
1주일에 2-3번	165 (20.7)	196	148 (18.6)	155	483 (60.7)	445	796 (100)
거의 매일	31 (13.3)	57	61 (26.2)	45	141 (60.5)	130	233 (100)
$\chi^2=41.9$ df=6 p<.0001							

<표 28. 이의 제기 방법과 토의·토론 경험별 분할표>

토의·토론 경험 변인에서는 토의·토론 경험이 적을수록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 주목할 것은 상대방이 말을 하는 도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응답이 발표 경험과 비례하여 감소하다가 토의·토론을 거의 매일한다는 집단에서는 오히려 역전되어 비교 집단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주제 이탈의 경험 빈도는 성격( $t=1.8, p>.05$ )에 따른 차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토의·토론 경험 빈도( $F=3.8, p<.05$ ) 변인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구분		평균(M)	표준편차(SD)
성격	내성적	2.07	0.70
	외향적	2.04	0.70
t=1.8 p>.05			
구분		평균(m)	표준편차(SD)
모듬 활동 경험	1달에 1번	2.07	0.71
	1주일에 1번	2.07	0.67
	1주일에 2-3번	1.98	0.68
	거의 매일	2.10	0.80
F=3.8 p<.05			

<표 29. 성격과 토의·토론 경험에 따른 주제 이탈 경험 빈도>

주제 이탈의 경험 빈도는 내성적 성격 집단(2.07)이 외향적 성격 집단(2.04)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다. 토의·토론 경험 빈도에 따른 결과를 보면, 1주일에 2-3번한다는 집단은 주제 이탈의 경험 빈도가 가장 낮으며, 거의 매일한다는 집단은 주제 이탈의 경험 빈도가 가장 높다.

## 5.2. 토의·토론에서의 문제 발생 경험 빈도와 요인

‘모듬 활동을 할 때 친구들과 말이 안 통할 때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통해 토의·토론에서의 문제 발생 경험 빈도를 조사하였다. 문제 발생 요인은 친구들과 말이 안 통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여 그 결과를 조사하였다.

### 5.2.2. 언어 사용에 따른 의사소통 문제 발생 경험 빈도

토의·토론에서의 언어 사용 방법에 따른 의사소통의 문제 발생 경험 빈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의 제기 방법(F=69.7 p<.0001)과 주제 이탈 경험 빈도(F=61.4 p<.0001)에 따라 문제 발생 경험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분		평균(M)	표준편차(SD)
이의 제기 방식	말하지 않는다	2.15	0.80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도중에 말한다.	2.11	0.78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말한다.	1.92	0.71
F=69.7 p<.0001			
주제 이탈 경험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1.83	0.82
	그렇다	2.00	0.68
	별로 그렇지 않다	2.18	0.77
	매우 그렇다	2.57	1.08
F=61.4 p<.0001			

<표 30. 모둠 활동시 언어 사용 방식에 따른 문제 발생 경험 빈도>

위 표를 보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집단(2.15)은 어려움의 겪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반면 말차레를 지키면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응답한 집단(1.92)은 어려움을 가장 덜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주제 이탈 경험 빈도 변인에 따른 결과를 보면, 주제 이탈 경험 빈도가 매우 많다고 응답한 집단(2.57)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제 이탈의 경험 빈도가 낮아짐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정도도 이와 비례하여 낮아지고 있다.

앞의 친구 대화에서 소극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는 집단이 의사소통상의 문제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토의·토론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의사소통 유형별 문제 발생 경험 빈도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별 의사소통 문제 발생 경험 빈도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의사소통 유형별 문제 발생 경험 빈도는 서로 밀접한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대화와 토의·토론은 가장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r=.23, p<.001$ ), 발표와 토의·토론간의

상관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13, p<.001$ ).<sup>17)</sup>

### 5.2.2. 문제 발생의 요인

모둠 활동시 친구들과의 말이 통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항목과 빈도를 보이면 다음 표와 같다.

영역	내용	N(%)
내용	상대방과의 의견 대립	1581(70.2)
	상대방의 이해 부족	120(5.3)
	주제 이탈 내용	40(1.8)
	의견이나 주장에 논리 부족	25(1.1)
태도	상대방의 모둠 활동에 참여 안 함	112(5.0)
	상대방의 무시(말을 듣지 않음)	109(4.8)
	나의 태도	20(0.9)
표현	의견이나 생각을 제대로 표현 못 함	86(3.8)
	말을 안 함	19(0.8)
	목소리가 작음	5(0.2)
기타		134(6.0)
합계		2251(100)

<표 32. 모둠 활동시 친구와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와 빈도>

위 표를 보면, 문제 발생 요인으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78.5%의 학생이 내용상의 문제를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대방과의 의견 대립이나 차이'가 70.2%로 가장 빈도가 높

17) 상관 분석 결과를 보이면 다음 표와 같다.

	친교 대화	발표	토의·토론
친교 대화	1		
발표	.21*	1	
토의·토론	.23*	.13*	1

<표 31. 의사소통 유형별 문제 발생 경험 빈도 상관 분석 결과>

\* $p<.001$



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 상대방의 이해 부족, 주제를 이탈한 내용, 논리 부족 등의 응답이 나왔다. 태도에서는 발표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듣기 태도 문제(9.8%)를 중요한 문제 발생 요인으로 들고 있으며, 표현에서는 의견이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여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3.8%), 말을 안 하는 문제(0.8%), 목소리가 작은 문제(0.2%) 등을 들었다.

토의·토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대부분 의견 대립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고등학생의 경우, 토의·토론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차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내용 차이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표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듣기 태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모둠 활동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듣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K C I

##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유형별 변인에 따른 언어 사용 실태, 언어 사용 방식과 문제 발생 경험 빈도와와의 상관성을 조사·분석하고, 문제 발생 요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언어 사용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차이를 알 수 있었고, 언어 사용 방식과 문제 발생 경험 빈도는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친교 대화에서의 변인별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년별로는 듣기 방법과 화제 도입 방법에서 집단간의 차이는 나타났으나, 발달적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성별, 성격, 친구수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여학생, 외향적 성격, 친구수가 많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타인 배려적인 의사소통 방식인 공감적 듣기 방법과 자발적인 화제 도입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왔다. 남학생과 내성적 성격, 친구수가 적다고 응답한 집단일수록 소극적 의사소통 방식인 아무 말 없이 듣는 방법과 자발적으로 화제를 도입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친교 대화에서 언어 사용 방식에 따른 문제 발생 경험 빈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소극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집단일수록 대인 관계 형성에서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을 조사하였는데, 대다수의 응답자가 ‘먼저 말을 걸기가 어려워서’, ‘서먹한 관계’, ‘대화 주제의 결여’ 등의 이유로 대인 관계 형성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소극적인 태도가 대인 관계 형성에 가장 큰 장애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발표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는 발표 태도와 발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발표 태도에서는 학년에 따른 발달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 학년에 걸쳐 피드백을 고려한 말하기를 한

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발표에 대한 평가에서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생각한대로 발표했다’는 응답이 감소하고, ‘내 생각을 다 말하지 못한 것 같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년과 비례하여 발표에 대한 평가 기준이 향상된 결과로 해석된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집단이 청중을 고려하면서 발표한다와 생각을 다 말하지 못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남학생 집단보다 높았다. 또한 외향적 성격과 발표 경험이 많다고 응답한 집단일수록 청중의 반응을 보면서 말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발표 불안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교 집단에 비해 생각한 대로 발표하여 만족스럽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발표 태도와 평가에 따른 문제 발생 경험 빈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발표 태도에서는 청중을 고려하면서 말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문제 발생 경험 빈도가 가장 낮았으며, 발표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집단과 청중의 반응을 보지 않는다고 응답한 집단은 문제 발생을 경험하는 빈도가 높았다. 발표 내용에 대한 평가에서는 생각과는 다른 말을 했다고 응답한 집단이 문제 발생 경험 빈도가 높았으며, 생각대로 발표했다고 응답한 집단은 어려움을 가장 덜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의 문제 발생 요인으로는 ‘재미가 없어서’, ‘친구들의 주의 부족’, ‘목소리가 작아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토의·토론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는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과 주제 이탈의 경험 빈도 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등학생, 남학생, 매일 모둠 활동을 하는 집단은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주제 이탈의 경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성격 변인에 따라서는 외향적 집단이 내성적 집단보다 말차례를 어기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주제 이탈 경험 빈도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토의·토론에서의 언어 사용 방식과 문제 발생 경험 빈도간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집단일수록 문제 발생 경험 빈도가 높았다. 친교 대화와 마찬가지로 토의·토론에

서도 소극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는 집단은 문제 발생의 경험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주제 이탈의 경험 빈도와 문제 발생 경험 빈도간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주제 이탈 경험 빈도가 높을수록 문제 발생 경험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발생의 요인으로 대부분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생이 모둠 활동에서 의견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한 것이라 보인다.

의사소통 유형별 문제 발생의 경험 빈도는 서로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친교 대화와 토의·토론 간의 상관성이 가장 높으며, 발표와 토의·토론간의 상관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교적 대화와 토론·토의는 대화 참여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유형이므로 일방적인 의사소통 유형인 발표보다는 더 밀접한 상관성을 가진다.

## 참고문헌

- 강현석 외 역(2002), 문화와 의사소통의 사회언어학, 한국문화사.  
구현정(1997), 대화의 기법, 한국문화사.  
김혜숙(2002), “모둠 활동에 나타나는 말하기·듣기 개념 틀에 대하여,” 화법연구 4, 한국화법학회.  
민현식(2002), 국어 사용 실태 조사 방법론 연구, 사회언어학 10-1, 한국사회언어학회.  
서재철(1990), “화법 이론에 입각한 말하기 교육의 내용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심혜숙·이상순(1998), “심리 경향에 따른 의사소통 유형 분석,” 한국심리유형학회지 5-1.  
오미영(2004), 토론 VS. TV 토론, 역락.  
이찬규 역(2003), 언어 커뮤니케이션, 한국문화사.  
이창덕 외(2000), 삶과 화법, 박이정.  
임철성 역(1995),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집문당.  
임철성 역(1997), 대인의사소통, 한국문화사.  
임철성 외(1999),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 커뮤니케이션북스.

임철성(2003), 수업 대화, 화법 연구 6, 한국화법학회.

전은주(1999), 말하기·듣기 교육론, 박이정.

진정미(2002), “대학생을 위한 말하기 교육,” 화법연구 4, 한국화법학회.

허경호(2003),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 능력 척도 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언론학보  
47-6호.

K C I

김순자·김명희

김순자

서울 성동구 행당동 산 17번지

한양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33-791

전화 번호: 02-2290-1505

전자 우편: prage@hanmail.net

김명희

서울 성동구 행당동 산 17번지

한양대학교 사범대 교육학과

133-791

전화 번호: 02-2290-1105

전자 우편: mhkim@hanyang.ac.kr

K C I

□ 부록18)

-1단계-

1. 학교와 학년을 쓰세요.
2. 성별을 표시하세요.
4. 나의 성격은 어떤 편입니까?  
1) 내성적 2) 외향적
5. 친한 친구는 몇 명입니까?  
1) 없다. 2) 1명 3) 2~3명 4) 4명 이상
8.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수업시간이나 기타 모임 등에서)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1) 한달에 1번 정도 한다. 2) 1주일에 1번 정도 한다.  
3) 1주일에 2~3번 정도 한다. 4) 거의 매일 한다.
9. 모둠 활동(조별활동, 그룹활동)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1) 한달에 1번 정도 한다. 2) 1주일에 1번 정도 한다.  
3) 1주일에 2~3번 정도 한다. 4) 거의 매일 한다.

-4단계-

1. 새 학년이 되었을 때 말을 잘하지 못해서 친구를 사귀기 어려울 때가 있나요?  
1) 매우 많다. 2) 많다. 3) 많지 않다. 4) 거의 없다.
2. 새로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렵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쓰세요.
3. 친구가 얘기할 때 나는 주로 어떻게 하나요?  
1) 아무 말 없이 잠자코 듣는다.  
2) “응, 어, 맞아, 정말, 진짜” 등의 맞장구를 치며 듣는다.  
3) 친구 얘기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
4. 친구와 얘기하다가 할 말이 없을 때 나는 주로 어떻게 하나요?  
1) 가만히 있다.  
2) 할 얘기를 생각해 내서 무슨 얘기든 시작한다.  
3) 친구에게 말 좀 하라고 한다.

18) 본 논문에서 연구 내용으로 다루지 않은 문항은 제외하여 제시한다.

5. 내가 발표를 하면 친구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편인가요?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그렇지 않다. 4) 거의 그렇지 않다.

6. 발표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안 듣는다면, 왜 그런지 쓰세요.

7.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할 때 나는 어떻게 하나요?

- 1) 떨려서 아무 생각이 안 난다.
- 2) 청중이 내 말을 잘 듣는지 말든지 내가 할 말만 한다.
- 3) 청중이 내 말을 잘 듣는지 보면서 발표를 하는 편이다.

8. 수업시간에 발표를 한 후 어떤 기분이 드나요?

- 1)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말을 한 것 같다.
- 2) 내 생각을 다 말하지 못한 것 같다.
- 3) 생각한 대로 발표해서 만족스럽다.

9. 모둠활동(조별활동,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들과 말이 안 통할 때가 있나요? 1) 매우 많다. 2) 많다. 3) 많지 않다. 4) 거의 없다.

10. 말이 안 통할 때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쓰세요.

11. 토론, 토의할 때, 다른 사람이 나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면 나는 어떻게 하나요?

- 1)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다.
- 2) 다른 사람이 말하는 중에 내 생각을 말한다.
- 3) 다른 사람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생각을 말한다.

12. 토론, 토의할 때, 나는 딴 얘기를 자주 하나요?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K C I